

## 제 1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 “재난 및 긴급상황에서의 노인인권 보호”

대한민국, 서울, 2021년 10월 26일 ~ 10월 27일

#### 개요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는 현재 세계 대부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범세계적인 현상인 한편, 지난 몇 년 동안 위기 상황의 발생과 지속 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과 2017년 사이 국제적 대응을 필요로 한 재난은 16개에서 30개로 증가했으며 평균 지속 기간은 4년에서 7년으로 증가했습니다(UN DESA, 2019). 이 두 가지 현상은 증가하는 위기 상황의 빈도와 지속 기간이 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연령, 성별, 경제 및 건강 상태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위치 및 정체성이 위기 상황에서 완화, 적응 및 구조와 관련된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지는 않더라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보건 위기든, 전쟁과 분쟁에 의해 야기된 인도주의적 위기든, 자연 재해든, 특히 노인들이 배제 또는 고립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보고서들은 노인 학대와 차별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은 기존에 존재하던 노인학대와 차별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는 최근 전세계에 영향을 미친 보건위기 중 하나인 COVID-19 팬데믹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유럽에서 COVID-19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이고 사망자의 50% 이상이 80세 이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은 비상 구호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그들의 취약성이 더욱 더 악화될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서의 노인들의 긍정적인 기여는 제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 재해와 인재(人災)가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 한 노인들은 불가피하게 점점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GAC)는 ‘재난 및 긴급상황에서의 노인인권 보호’를 주제로 ‘제 1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개최합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서의 노인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일반적인 재난과 위기의 환경에서 노인이 어떻게 첫 번째 피해 집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고려되는

집단이 되는지를 재조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포럼을 통해, AGAC은 국제기구, 국가 정부 관계자 및 학술 연구자부터 시민사회단체(활동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초청하여 아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 사회경제적 위치와 같은 사회적 정체성과 연령의 교차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노인들에 대한 편견, 차별, 방치가 더욱 더 확대되고 심화되는가, 둘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떤 노력이 있어 왔는가, 셋째, 유엔 노인인권협약 채택을 포함하여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노력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 세션 별 주제

포럼은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보건위기에서의 노인, 2) 인도주의적 위기에서의 노인, 3) 기후변화/재난위기에서의 노인, 그리고 4) AGAC의 WHO 연령주의 국제보고서 국문번역본 출간 기념 토론회로 구성되며 특별세션으로 시민사회 토크콘서트가 개최됩니다. 세션 4를 제외한 이외 세션은 4명의 발표자(각 15-20분)와 질의응답으로 구성되며 세션 4는 WHO 연령주의 국제 보고서 책임 연구원 바니아 드 라 푸엔테-누네즈의 발표와 세 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로 진행됩니다. 모든 세션은 사회자(좌장)에 의해 진행됩니다.

#### 세션 1:

보건위기에서의 노인

#### 특별 세션:

시민사회 토크 콘서트

#### 세션 2:

인도주의적 위기에서의 노인

#### 세션 3:

기후변화/재난위기에서의 노인

#### 세션 4 (with WHO):

세계보건기구 연령주의 국제 보고서, 재난상황과 연령주의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위기 사태가 점점 더 빈번하게 그리고 강도 높게 발생함에 따라, 현재 재난과 위기대응 체계가 위기상황에서의 노인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하여 대응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인을 그 자체로 유의미하고 독특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정부와 국제 (개발) 기관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지역, 국가 및 국제 주체들 사이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특히 재난 상황에서의 노인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 채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상황에서의 노인 대응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재난 상황에서 노인 보호를 위한 유일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은 인권에 기반한 접근 방식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주류화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엔 노인인권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는 2019년 보고서의 주제를 '재난 상황과 인도주의적 위기에서의 노인인권 보호'로 채택했습니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2020년 노인들이 경험하는 특정 위험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일부 국가에서 시행된 모범 사례들을 소개하는 정책 브리프를 발간했습니다. 이 정책 브리프는 노인들의 요구가 재난 대비에서 위험관리, 위기감소, 복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반영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전략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엔기구와 함께, 국제비정부기구들(INGOs)은 대부분의 재난 상황에서 노인들이 어떤 식으로 열외로 취급되어 왔는지를 밝히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의 2020년 보고서 '지금이나 아니면 언제 가능할 것인가? 인도주의적 위기에서의 노인들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는 것'과 국제앰네스티가 2019~2020년 발간한 방글라데시, 미얀마, 나이지리아 분쟁 이후 인도적 위기에 처한 노인에 대한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WHO는 2021년 연령주의가 어떻게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 인권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다룬 연령주의 국제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동 보고서는 연령주의가 어떻게 노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물론 폭력과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는지를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외 기관들이 이룬 가시적이고 주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인권 보호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이러한 범세계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1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개최하며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공무원, 유엔기관, INGOs,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경험과 관점을 공

유하고, 위기 상황의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통의 기반과 공동체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유럽과 아시아뿐만 아니라 고소득, 저소득, 중위소득 국가의 활동가들과 대표들을 초빙하여, 다른 지역과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적, 경제적 격차를 넘어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 세션1: 보건위기에서의 노인

고령 남성과 여성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COVID-19 대유행 보건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세션1에서는 정부와 INGO 관계자 및 학계 연구자가 보건위기에서의 노인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룰 것입니다. 고령화 NGO 위원회의 위원장 실비아 페렐 레빈은 현재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노인에게 대한 폭력, 학대, 방치가 어떻게 급격하게 증가했는지에 대해 발표합니다.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마티아스 폰 슈바넨플루겔국장은 보건위기의 노인 보호를 위한 독일의 대응을 소개합니다.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의 퀴엔 트란(Quyen Tran) 지부장은 노인의 보건위기 대응을 위해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채택한 다양한 조치와 활동을 공유합니다. 권순만 한국보건산업개발원장은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COVID-19 대응 정책이 어떤 요소를 포함할 수 있고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세션은 서울대학교 정진성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 특별 세션: 시민사회 토크콘서트

시민사회 토크콘서트는 다양한 노인인권 관련 국제비정부기관(INGO)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며 얻은 경험을 공유하고, INGOs간 협력을 통해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민사회 토크콘서트는 두 개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세계노인권리연대의 마가렛 영의 발표에 이어 6명의 INGO(세계노인권리연대, 헬프에이지 코리아, 제네바 NGO 노령화위원회,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 AGE 유럽 플랫폼(오크라), 노인서비스연합) 인사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이 특별 세션에서는 COVID-19 시대를 맞아 노인들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을 살펴보고,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동 세션은 강남대 박영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 세션2: 인도주의적 위기에서의 노인

인도주의적 위기는 다수의 사람들의 건강, 안전 또는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인도주의적 위기는 전쟁, 자연재해, 기근,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션 2는 특히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인구 이동(이주)과 이와 관련된 맥락에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노인들의 다양한 측면을 다룰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프로그램의 매튜 웰스 부국장이 분쟁(학살) 이후 위기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조건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합니다. 에이지 인터내셔널의 공공정책고문이자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의 2020년 보고서 '지금 아니면 언제 가능할 것인가?'의 공동저자인 켄 블루스톤이 동 보고서의 주요 결과에 대해 논의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장은하 박사는 성별과 교차성 관점에서 본 인도주의적 지원에서의 노인들에 대해 발표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브룩스대 수프리야 아케르카 교수는 현 국제인도주의 위기대응 메커니즘의 기존 규범적 틀과 가이드라인을 짚어보고 위기 시 노인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세션은 한국인권재단의 이성훈 이사님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 세션3: 기후변화/자연재해 위기에서의 노인

최근 몇 년간 지진, 홍수, 허리케인, 장기간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가 증가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는 많은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특히 노인과 같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세션 3에서는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인구고령화 연구소의 사라 하퍼교수가 인구 고령화가 환경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해 발표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여성가족지역개발부 파티마 주리다 비티 살레흐 심의관이 고령자에게 미치는 자연재해(위기상황)의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말레이시아가 사회적 지원을 통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소개합니다. 인도네시아 야크콤 비상대책복부 사리 무티아 티머 이사는 2018년 술라웨시 중부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노인들의 권리와 기본적인 요구를 논의합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홍수 교수는 한국의 사례와 관련하여 기후변화 시대에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합니다. 이 세션은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조영숙 양성평등대사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 세션4 (with WHO): 세계보건기구 연령주의 국제보고서, 재난/긴급 상황과 연령주의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3월 다른 UN 기구들과 함께 연령주의가 어떻게 국민의 건강과 웰빙,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 연령주의 국제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연령주의에 대한 체계적 개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다양한 증거를 통해 연령주의 척도, 영향, 결정요인에 대해 기

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주의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보고서를 널리 전파하고, 특히 한국 독자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AGAC은 국문번역본을 출판합니다. 세션 4는 동 보고서의 국문번역본 발간을 기념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노인과 관련하여 연령주의에 대해 토론합니다. 특히, 긴급/재난 상황에서 연령주의가 어떻게 나타나며 위기 상황이 연령주의를 어떻게 더 심화시키는가에 대해 토론합니다. 세션 4에서는 WHO 연령주의 국제보고서 책임연구원인 바니아 데라 푸엔테 누녜스 박사가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발표에 이어 유엔 경제사회국 아말 아부 라페 국장, 헬프에이지 인터네셔널의 켄마스토벨 글로벌 보이즈 고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순돌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이 세션은 서울대학교 최성재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 일정표

	첫째 날 (10월 26일)	둘째 날 (10월 27일)
오전	등록 (09:30-10:30)	등록 (09:30-10:30)
	개막식 & 기조연설 (10:30-12:00)	세션2: 인도주의적 위기에서의 노인 (10:00-12:00)
	점심 (12:00-14:00)	점심 (12:00-14:00)
오후	세션1: 보건위기에서의 노인 (14:00-16:00)	세션3: 기후변화/재난위기에서의 노인 (14:00-16:00)
	시민사회 토크콘서트 (16:30-18:30)	세션4 (WHO와 함께): 세계보건기구 연령주의 국제 보고서, 재난상황과 연령주의 (16:30-18:15)
		폐막(18:15-19:00)

**부대 행사: 글로벌 노인인권 캠페인 온라인 전시회**

AGAC은 동 포럼과 동시에 진행되는 행사로 국제 기구, 시민 사회, 정부, 민간 부문의 활동가들의 노인인권 관련 캠페인을 취합하여 전시하는 '글로벌 노인인권 캠페인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연령주의, 유엔노인권리협약, 고령여성, 직장내 연령주의, 노인복지, 연령과 나이듦에 따르는 변화 등 노인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룬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관람객들은 홈페이지 댓글 코너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캠페인 현장을 방문해 노인인권에 관한 주요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AGAC의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 노력에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AGAC는 [웹사이트](#)와 [가상현실 전시회](#) 두 가지 인터페이스 옵션을 제공합니다.